

여수섬박람회 주행사장은 진모지구... 한 달만에 원안대로

시·조직위, 속의 거처 결정...세계박람회장 공간 부족·시간 여유 없어 주차·교통대책 등 해결 집중...셔틀버스·부정기 여객선 운행 등 검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주행사장이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로 최종 결정됐다.

여수시와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30일 섬박람회 주행사장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변경하자는 여론에 대해 한 달여 간의 검토와 속의를 거듭한 결과, 당초의 진모지구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행사장 변경이 어려운 이유는 세계박람회장의 공간이 부족하고, 변경에 따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직위측은 설명했다.

시와 조직위에 따르면 세계박람회장은 2024년 7월 현재 국제관 임대율이 60%를 넘어서는 등 전시·연출공간이 섬박람회를 개최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부족한 전시면적을 보완하기 위해 박람회장 내에 대형 텐트를 추가 설치할 경우 박람회장의 강점으로 꼽혔던 비움절감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섬박람회를 2년여 앞두고서 주행사장을 변경할 경우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정상적인 개최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최근 임명된 박명성 섬박람회 총감독도 '박람회장은 기 조성된 시설로 인해 전시시설의 자유로운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섬박람회 자문위원회도 지난 24일 열린 자문회의에서 '진모지구 유지'를 종합의견으로 채택했다.

당초 진모지구를 주행사장으로 하는 섬박람회는 최근 접근성과 기상우려 등의 이유로 주행사장을 변경하자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따라 시와 조직위는 한 달여간의 자체 비교분석과 국소단장 토론(2차례), 조직위 자문위원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며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으나, 결국 원안대로 추진기로 한 것이다.

이번 최종 결정에 따라 시와 조직위는 진모지구의 약점으로 꼽히는 교통대책과 행사장 안전성 확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대책으로 1만여 면 상당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셔틀버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수엑스포항과 개도, 금오도를 오가는 부정기 여객선 운항도 검토 중이다.

진모지구의 경우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본격적인 전시관 조성에 앞서 안전진단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2026년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2개월간 열릴 예정이다. 진모지구를 주행사장, 개도·금오도·여수세계박람회장을 부행사장으로 하는 총 184,302㎡의 규모에 총 30개국에서 300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섬박람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섬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생태계 전환으로서 섬과 바다의 미래상 공유, 국내외 섬 국가 및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섬경쟁력 확보 및 섬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주행사장이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로 최종 결정됐다. 주행사장 조감도.

정기명 여수시장은 "조직위와 전문위를 비롯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심한 검토를 거친 끝에 진모지구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제는 여수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chkim@

청소년 '백일해 주의보'...손 잘 씻고 마스크 쓰세요

광양시, 방학기간 전파 차단...감염 예방 수칙 준수·예방 접종 당부

광양시가 학령기 청소년 중심으로 백일해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방학기간 백일해 전파 차단을 위해 호흡기감염 예방수칙 준수와 적기 예방접종 준수를 당부했다.

백일해는 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경한 기침, 발작성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인다.

잠복기는 5일에서 최대 21일로 환자 또는 보건자의 비말감염에 의해 전파되며 1명당 12명에서 17명까지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

현재 백일해 신고 환자의 92.2%가 학령기 청소년(7-19세)이며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방학 기간 청소년의 학원 수강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으로 백일해 환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광양시는 백일해 전파 방지를 위해 호흡기 감염 예방수칙 준수와 적기 예방접종 준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실천, 증상이 발생하면

마스크 착용하기 등 위생 수칙과 예방접종 적기 접종을 준수해야 한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기초접종 후 생후 15개월-18개월, 4세-6세, 11세-12세에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김복덕 광양시 보건소장은 "백일해는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므로 전파 방지를 위해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실천하기,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예방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사랑상품권' 사용 소상공인 중심 개편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이달부터 211곳 사용 불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이 넘는 업체는 다음 달부터 '여수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업체 211곳에서 '여수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일부 마트·주유소·병원·약국 등 제한된 가맹점에 대해 사전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쳤으며, 8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사업으로 발행한 상품권은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여수시 관계자는 "상품권 이용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겠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수사랑상품권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 전어축제에 추억 낚으러 가자!

23~25일 망덕포구 일원...전어잡기 체험·락 페스티벌 등 다채

'제23회 광양전어축제'가 오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어! 별해는 밤을 해업치다'를 주제로 광양시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린다.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전어 축제는 '배알도 섬정원 보물찾기', '청소년 행복 락(樂) 페스티벌', '찾아가는 민속씨름 대회' 등 풍성한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축제 프로그램 외에 배알도 섬정원, 별해는 다리 야간 경관 같은 볼거리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축제 첫날 주 무대에서 포에버윈드 오케스트라 공연, 관광객을 위한 즉흥 무대, 전어가요제 예선이 펼쳐진다.

개막식이 열리는 둘째 날은 매년 축제장에서 가



전어 굶이

장 큰 인기를 끈 전어잡기 체험, 청소년 행복 락 페스티벌, 전남 무형문화재 전어잡이 소리 시연, 붓글씨 퍼포먼스, 초대 가수 장민호의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5일은 전국 전통 씨름대회를 시작으로 전어잡기 체험, 전어가요제 본선, 초대 가수 김소유 등 축하공연으로 사흘간의 축제가 막을 내린다.

축제기간 망덕 먹거리터온 일대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주차는 전어조형물이 있는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임시 주차장이나 진월초등학교 뒤쪽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김정일 광양전어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장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광양의 대표 축제에 방문해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추억을 만들고 또 고소한 전어도 맛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착착'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업무 협약

고흥군이 추진 중인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고흥군은 지난 30일 군수 집무실에서 순천국토관리사무소(소장 정권일)와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흥군과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협약을 통해 시설물 설치, 운영, 유지관리 및 소유권 등을 공유했으며 스마트 복합쉼터가 조성될 때까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도로 이용자의 휴식 공간 제공 및 지역의 문화·관광 홍보 등이 가능한 쉼터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다.

군은 지난해 12월 국도 27호선 유자 공원(풍양면 한동리 산 3 일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 지난 3월 선정됐다.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 쉼터는 국비 36억원, 군비 60억원 등 총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해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 시설과 주요시설(특산물 판매장, 홍보관, 박물관, 체험관), 편의시설(화장실, 충전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스마트 복합 쉼터는 국도 이용자에게 주행 중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유아공원 특색



를 살려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 및 판매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복합 쉼터는 우리 군의 강한 추진 의지가 모여져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로 이용자와 관광객에게 더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고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자중 기자 gju@kwangju.co.kr

군민이 행복한 '곡성 만들기'

정책 수립 보고회...의견 수렴

곡성군의 획기적인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군민 행복 증진'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 30일 '군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 종합적인 행복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동통신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민총행복연구소 이재경 소장이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군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은 전 군민과 행복취약 계층의 행복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부터 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복 지표 개발에 나섰다. 군민 2,000명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실시해 '곡성만의 행복 데이터'를 축적했으며, 이를 토대로 4개년의 분야별 행복 정책 추진 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군민 행복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기존 추진 사업은 보완·강화하고,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분야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기본계획 수립 전략을 토대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실제 기존 추진 사업 51건, 신규 사업 31건 등 총 82건의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됐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보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0억 확보

공모사업 선정...장애인 스포츠 활동 장려 인프라 조성

보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제약 없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육센터 부지는 공모 선정을 통해 보성체육공원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체육관과 헬스장, 재활운동실, 다목적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방침이다.

군은 반다비 체육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장애인체육회 등 관내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세부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물론 비장애인도 함께하는 생활체육 복지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



더위야 물렸거라~ 보성군은 지난 달 30일 폭염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도심의 기운을 낮추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해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보성군 제공)

순천 관광지 인근 식품업소 위생 점검

다음달까지 식중독 예방 위생 관리·친절 서비스 현장 지도

순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골, 선암사 등 주요 피서지와 관광지 인근의 식품점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적으로 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소의 식재료 보관 상태와 위생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 한다.

또 지역 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절 서비스에 대한 현장 지도도 함께 이루어진다.

특히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업소의 가격표 게시와 청구 금액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 것을 영업주들에게 당부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 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절 서비스에 대한 현장 지도도 함께하고 있다"며 "바가지 요금 근절과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